

《古詩源》〈顏延之〉篇 譯註

崔宇錫*

<목 차>

1. 序文
2. 古詩源〈顏延之〉篇 譯註
3. 結語

1. 序文

沈德潛(1673-1769)의 字는 確士이고 號는 歸愚이다. 江南 長洲(현재의 江蘇省 蘇州) 사람으로 清代 聖祖, 世宗, 高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시 좋아한 고종은 그의 詩才를 높이 사 중용하였다. 內閣學士, 禮部侍郎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주지하다시피, 심덕잠은 소위 '格調說'의 詩論을 주장하는 한편, 雄渾, 悲壯, 高古한 풍격을 숭상했던 前後七子의 장점을 취하고, 王士禛(1634-1711)의 '神韻說'의 영향을 받아 시의 '體裁'와 '音節'을 논한 것 외에도, '音律'의 조화와 '學識'을 매우 중시했으며 '溫柔敦厚'한 풍격을 추구하는 가운데 '詩教'의 전통을 좇으려 했다. 물론 그의 이러한 詩觀은 그의 選詩集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으니, 《古詩源》에서도 이러한 시관은 곳곳에 드러나 있다. 《고시원》은 康熙56년(1717) 6월에 집필을 시작하여 심덕잠의 나이 46세인 康熙58년(1719) 2월에 완성되었다. 그 내용은 《詩經》과 《楚辭》를 제외한 先秦

* 우송대학교 글로벌뉴얼디그리학부 중국전공 조교수.

부터 隋代까지의 중요 시가를 시대의 순서에 따라 수록하고 있는데, 郊廟樂章부터 童謠里諺까지의 약 700여수의 시가에 評註를 곁들이고 있다.¹⁾ 심덕잠은 序文에서 “책은 14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고시를 다 수록했다고는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고시의 전아한 것을 대략 여기에 다 모았다. 무릇 시를 배우는 자를 위해 그 근원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²⁾라고 밝혔다.

顏延之(384-456)의 字는 延年이고, 시호는 憲子이다. 琅琊 臨沂(현재의 山東省 臨沂) 사람으로 晉나라의 光祿勳 顏含의 증손자이다. 어려서는 가난했으나 학문을 좋아했다. 東晉 시기에는 劉裕의 世子參軍을 역임했었고, 南朝 宋武帝 때에는 太子舍人, 少帝 때에는 始安太守, 文帝 때에는 步兵校尉까지 승진하였다가 후에 永嘉太守로 좌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孝武帝때에 다시 金紫光祿大夫의 높은 관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성격이 다소 과격하고 술을 즐겼으며, 언행에 거침이 없어 禍평을 받은 적도 있다. 陶淵明(365-427)과 交유관계를 가졌으며, 시가창작에 있어서는 謝靈運(385-433)과 함께 ‘顏謝’로 명칭되었다. 儒佛에 통달하여 ‘三世因果’의 설을 주장 했고,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 《庭誥》를 짓기도 했다. 현재 遂欽立의 《先秦漢魏晉南北朝詩》에는 25題 52首의 詩作과 5首의 殘句가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한편 심덕잠의 《고시원》에는 총 7題 27首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고시원》에 8편 이상 수록된 상위 작가의 詩作 수량의 비교 도표를 살펴보자.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2			15		17			
시인	陶潛	鮑照	謝朓	曹植	顏延之	謝靈運	庾信	阮籍	唐山夫人	張華	何遜	陸機	沈約	江淹	左思	楊素	曹操	謝惠連	郭璞
수량	81	42	33	29	27	25	24	21	15	13	12			11		8			

1) 拙稿, <古詩源「庾信篇」譯註>(《中國學報》, 2012年6月, 117-118쪽 인용)

2) 沈德潛, 《古詩源》: “書成得一十四卷, 不敢謂已盡古詩, 而古詩之雅者略盡於此. 凡爲學詩者導之源也.”(北京: 中華書局, 1990年, 1-2쪽)

주의할 점은, 위의 도표를 통해 심덕잠은 안연지의 시가 창작을 상대적으로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시원》에 수록된 詩作의 수량만으로 본다면, 曹植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詩作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안연지와 ‘병칭’되며 후세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사령운의 것 보다 조금 더 많은 시작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고시원》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안연지의 詩作을 선택하여 譯註를 가하는 한편, 심덕잠의 안연지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고찰해 보고자한다.

본고는 北京 中華書局(1990年)에서 출판한 沈德潛選 《古詩源》판본을 그 저본으로 삼았으며, 내용 가운데 심덕잠의 評註는 일괄적으로 ‘沈評’으로 표시해 두었음을 밝힌다.

2. 본문

<송시(宋詩)·안연지(顏延之)>

○沈評: 안연지의 시에 대해, 당혜휴는 금을 아로새겨 넣듯이 화려한 어휘를 수식하였다고 품평하였다. 그러나 아로새겨 넣는 것이 너무 심하고, 채우고 깨매는 것으로 공교함을 구했으니, 도리어 진실한 기운을 상하게 하였다. 중간의 <五君詠>, <秋胡行>과 같은 시들은 모두 맑고 진실하며 높이 빼어난 것들이다. 육기는 늘어놓으며 서술하는 것에 뛰어났으며, 안연지는 아로새겨 넣는 수식에 능했다. 그러나 또한 이로 인해서 허물이 되었다. 《시경》에서 이르기를, “조화로움이 마치 맑은 바람같네”라고 하는 것이 아정한 음인 것이다. (顏詩, 惠休品爲鏤金錯采,³⁾ 然鏤刻太甚, 填綴求工, 轉傷真氣. 中間如<五君詠>, <秋胡行>, 皆清真高逸者也. 士衡長於敷陳, 延之長於鏤刻, 然亦緣此爲累. 詩

3) ○鏤金錯采: 鍾嶸의 《詩品》卷中에 “당혜휴가 이르기를, 사령운의 시는 부용꽃이 물에서 나오는 것 같으나, 안연지의 것은 화려한 수식을 금에 아로새겨 넣듯 하였다.(湯惠休曰, 謝詩如芙蓉出水, 顏如錯采鏤金)”라는 전고가 보임.

云, 穆如清風⁴⁾ 是爲雅音.)

<곡수의 연회에서 명을 받들어 지은 시 8장(應詔燕曲水作詩八章⁵⁾)>

○沈評: 《송략》에 이르기를, 문제 원가11년 3월 병진일에 낙유원에서 액운을 떨쳐 버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셨으며, 또한 강하의 왕의공과 형양의 왕의계를 본 따 모인 사람들에게 고하여 시를 짓게 하였다.(《宋略》曰, 文帝元嘉十一年三月丙辰, 禋飲於樂遊苑, 且祖江夏王義恭, 衡陽王義季, 有詔, 會者賦詩.)

- | | |
|---|--|
| 道隱未形 ⁶⁾ , 治彰既亂 ⁷⁾ | 도는 숨어 있어 형체가 없다가, 난을 종식시키고 다스리시네 |
| 帝跡懸衡 ⁸⁾ , 皇流共貫 ⁹⁾ | 제왕의 공적은 법도를 제정하는 것에 있으며, 황실 대대로 모두 함께 이어왔네 |
| 惟王創物 ¹⁰⁾ , 永錫洪算 ¹¹⁾ | 선왕이 만물을 주재하시며, 오래도록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사하셨네 |
| 仁固開周 ¹²⁾ , 義高登漢 | 인을 근본으로 하여 주나라는 개국되었고, 의를 |

4) ○穆如清風: 《詩經·大雅·烝民》에 보임.

5) ○曲水: 고대 중국의 풍속으로, 음력 3월 상사일(上巳日, 魏晉시기 이후부터는 음력 3월 3일로 정착됨)에 물가에서 연회를 벌이고 노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한해의 액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다. 이후 물에 잔을 띄어 놓고 이를 취해 마시는 풍속도 생겼다.

6) ○道隱未形: 《老子》41장에 “커다란 형상은 형체가 없고, 도는 숨어서 이름도 없다(大象無形, 道隱無名)”라는 구절이 보인다.

7) ○既亂: ‘난(亂)’은 ‘진(晉)’의 난을 가리키며, ‘기(既)’는 이미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8) ○跡: 여기서는 공적(功績)을 가리킴. ○懸衡: 《申子》에 “군주는 반드시 명쾌한 법과 정의(正義)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마치 저울추를 저울대에 매달아 그것으로써 가벼움과 무거움을 나타내는 것과 같으며, 그것으로써 못 신하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君必有明法正義, 若懸權衡以稱輕重, 所以一群臣也)”라는 전고가 보인다. 여기서는 법도를 제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9) ○皇流: 《文選·揚雄·長楊賦》에 “성스러운 문장에 이르러서는, 선대의 전통을 잘 계승하였네(逮至聖文, 隨風乘流)”라는 전고가 보임. 여기서는 ‘황실 대대로’의 의미이다.

10) ○創物: 《周禮》에 “지혜로운 자는 사물을 창조하네(智者創物)”라는 구절이 보임.

11) ○錫: ‘주다, 하사하다’의 의미를 갖는 ‘賜’와 같은 뜻임. ○洪算: 여기서 ‘산(算)’은 ‘수산(壽算)’으로 천수, 수명을 의미함. 즉, ‘洪算’은 ‘장수(長壽)’를 가리킴.

높여 한나라는 이루어졌다네
 祚融世哲¹³⁾, 業光列聖 나라의 운은 길고 대대로 성왕이 다스리니, 공업
 은 역대의 성군으로 빛나네
 太上正位¹⁴⁾, 天臨海鏡¹⁵⁾ 황제께서 천자에 즉위하시니, 푸른 하늘이 바다
 를 거울 같이 밝게 비추보는 것 같네
 制以化裁¹⁶⁾, 樹之形性¹⁷⁾ 법제는 풍속에 따라 알맞게 제정하시고, 사물의
 이치와 본성으로써 그것을 세운다네
 惠浸萌生¹⁸⁾, 信及翺泳¹⁹⁾ 은택은 만물에 미치니, 새와 물고기에게도 뻗어 나
 가네

○沈評: 太上是 文帝를 말함이다.(太上, 謂文帝也)

崇虛非徵²⁰⁾, 積實莫尚 교화의 허허로움을 받들며 과도한 징벌을 삼가
 니, 성과가 쌓여 더 좋을 수는 없다네
 豈伊人和, 實靈所祝²¹⁾ 어찌 이것이 인화로운 말미암은 것일까, 실로 하
 늘이 내려 주신 것이라네
 日完其朔, 月不掩望²²⁾ 태양은 초하루에도 그 모양이 온전하고, 달은 보

12) ○固: 여기서는 '근본(本)'의 의미를 가리킴.
 13) ○祚: 여기서는 '국운(國運)'을 가리킴. ○融: 여기서는 '길다(長)'의 의미임. ○世哲: 대대로 철왕 혹은 성왕이 있다는 의미.
 14) ○太上: '천자(天子)'를 뜻하며, 즉 여기서는 '문제(文帝)'를 가리킨다.
 15) ○海鏡: 거울처럼 밝게 빛나는 해수면을 가리킴.
 16) ○化裁: 여기서는 '변화'를 의미한다.
 17) ○形性: 《莊子·外篇·天地》에 "머물고 움직이며 만물을 낳는데, 그 만물이 이루어져 이치가 생기니, 이를 형체(形體)라 한다. 형체는 정신을 지키고, 각기 법칙이 있는데, 이를 일러 본성(本性)이라고 한다(留動而生物, 物成生理, 謂之形. 形體保神, 各有儀則謂之性)"라는 구절이 보인다.
 18) ○萌生: 여기서는 '만물(萬物)'을 가리킴.
 19) ○信: 여기서는 '뻗어 나가다'의 의미임. ○翺泳: 새와 물고기를 가리킴.
 20) ○徵: 여기서는 '징(懲)'字와 같은 뜻으로, 즉 '징벌하다', '처벌하다'의 의미이다.
 21) ○靈: 여기서는 '하늘(天)'의 의미이다. ○祝: '주다'의 의미임.
 22) ○日完其朔, 月不掩望: 《漢書》에 "천하가 태평하면, 태양은 초하루에 일식을 하지 않으며, 달은 보름에 가려지지 않는다(天下太平, 日不蝕朔, 月不掩望)"라는 전고가 있다. '朔'은 음력 매월 초하루이며, '望'은 음력의 보름을 가리킨다.

름에도 가려지지 않는다네

航琛越水²³⁾, 輦賚踰嶂²⁴⁾ 물 건너 멀리서 보물을 바치고, 보물을 가져오
고, 산 넘어 진귀한 공물을 실어 오네

○沈評: ‘진(賚)’은 ‘진(贖)’의 의미로, 멀리서 오랑캐들이 공물을 바친다는 의미이다.(賚, 同贖, 言遠夷納貢也.)

帝體麗明²⁵⁾, 儀辰作貳²⁶⁾ 태자께선 황제처럼 밝은 덕을 검비하셨으니, 북
두성과 짝하며 버금간다네

君彼東朝²⁷⁾, 金昭玉粹²⁸⁾ 저 동궁을 주지하시니, 금처럼 밝게 빛나고 옥처
럼 순수하시네

德有潤身²⁹⁾, 禮不愆器³⁰⁾ 덕은 몸을 윤택하게 만들며, 예는 인재로 성장하
는데 어긋나지 않는다네

柔中淵映³¹⁾, 芳猷蘭秘 부드러운 온화한 성품은 연못물에 비춘 듯하며,
난초의 그윽한 향기 같다네

○沈評: ‘제체(帝體)’는 태자(太子)이다. 《예기》에 이르기를, 장자는 선조에 대해 적자(嫡子)인 것이다. 《시전》에 이르기를, ‘의(儀)’는 ‘필적하다(匹)’이다. ‘진(辰)’은 ‘북두칠성(北辰)’이다. (帝體, 太子也. 《記》曰, 長子正體於上. 《詩傳》曰, 儀, 匹也. 辰, 北辰也.)

23) ○琛: ‘보물(寶物)’의 의미임.

24) ○賚: 공물로 바치는 진귀한 물건을 가리킴.

25) ○帝體: 여기서는 ‘태자(太子)’를 가리킴. ○麗明: 다른 사람의 밝은 덕을 더하다라는 의미임. 여기서는 ‘황제의 덕을 검비하다’라는 의미임.

26) ○儀: 여기서는 ‘필적하다(匹)’의 의미임. ○辰: 여기서는 ‘북진(北辰)’, 즉 북두칠성의 의미로 ‘문제(文帝)’를 암시하고 있다.

27) ○東朝: ‘동궁(東宮)’의 의미로, 태자가 거주하는 곳임.

28) ○粹: ‘순수하다’의 의미임.

29) ○德有潤身: 《禮記》에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富潤屋, 德潤身)”라는 전고가 있다.

30) ○愆: ‘위배하다’의 의미임.

31) ○柔中: 여기서는 태자의 성정이 도담고 온화함을 가리킴.

昔在文昭, 今惟武穆³²⁾ 옛날에는 송무제의 아들이 제왕 되셨고, 지금은
송문제의 아들이 제왕 되실차례로다
於赫王宰³³⁾, 方且居叔³⁴⁾ 빛나는 도다! 왕이 재상을 맡아주니, 마치 주공
단이 숙부를 맡아 줌과 같구나
有睟叡蕃³⁵⁾, 爰履奠牧³⁶⁾ 함치르르하게 지혜로운 변왕은, 제후의 번국을
잘 다스리네
甯極和鈞³⁷⁾, 屏京維服³⁸⁾ 지극히 편안하고 평화로우니, 분봉 받은 변왕들
이 잘 따르기 때문이구나

○沈評: '왕재(王宰)'는 왕이 재상을 맡는 것을 말함이다. 이로써 주공단에
견주었으니, 숙부의 위치에 있는 것이 매한가지로, 강하왕과 형양왕 두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王宰, 謂王爲宰輔. 比之周旦, 而亦居叔也, 指江夏, 衡陽二王.)

朏魄雙交³⁹⁾, 月氣參變⁴⁰⁾ 세 번째 달의 세 번째 날인 삼월 삼일에
開榮灑澤⁴¹⁾, 舒虹燦電⁴²⁾ 오동나무에 꽃은 피고 봄비 내리는데, 무지개 펼
쳐지며 번개가 번쩍이네

32) ○文昭, 武穆: 이것은 종묘(宗廟)의 배열 순서를 가리킨다. 즉, '시조(始祖)'는 중앙에 위치하고 아들들은 '소목(昭穆)'이라 칭하며 좌측에는 '소(昭)'라하고, 우측에는 '목(穆)'이라 불렀다. '소'는 2, 4, 6대가 위치하고, '목'은 3, 5, 7대가 위치했다. '문소(文昭)'는 주문왕(周文王)의 아들이며, 여기서는 송무제(宋武帝)를 가리키며, 무목(武穆)은 주무왕(周武王)의 아들이며, 여기서는 송문제(宋文帝)를 가리킨다.
33) ○於赫: 감탄사. ○王宰: 제왕을 보필함. 여기서는 당시 '사도(司徒)'의 직책이었던 팽성왕(彭城王) 유의강(劉義康)을 암시함.
34) ○方且居叔: 마치 주공단(周公旦)이 숙부(叔父)의 위치에서 보필해 준 것과 같다는 의미.
35) ○睟: 함치르르 윤기 나는 모양을 가리킴. ○叡: '예(睿)'자와 통한다. '예지(叡智)'가 있음을 가리킴. ○蕃: '번왕(蕃王)'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강하왕(江夏王)'과 '형양왕(衡陽王)'을 가리킴.
36) ○奠牧: 제후(諸侯) 번국(蕃國)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 관할 구역을 가리킴.
37) ○鈞: 여기서는 '평(平)'과 같은 의미임.
38) ○屏京: 토지를 분봉(分封) 받은 변왕을 가리킴.
39) ○朏魄雙交: 한 달 중 셋째 날을 가리킴.
40) ○月氣參變: 여기서는 세 번째 달을 가리킴. '參'은 '三'의 의미임.
41) ○開榮: 여기서는 오동나무가 꽃을 피우다의 의미임. ○灑澤: 여기서는 봄비가 내린다는 의미임.
42) ○舒虹: 무지개가 펼쳐짐. ○燦電: 번개가 번쩍임.

化際無間⁴³⁾, 皇情爰眷 태평 시절이 빈 구석하나 없으니, 황제의 마음은
 흡족하노라

伊思鑄飲⁴⁴⁾, 每惟洛宴⁴⁵⁾ 호경에서의 즐거운 술자리 그리워하고, 매년 낙
 양에서의 주연을 생각하셨노라

○沈評: ‘굴백쌍교(朏魄雙交)’는 한 달 중 셋째 날을 이른다. ‘월기삼변(月氣參變)’은 삼월을 이른다. 이것은 수계(음력 3월 3일에 액운을 떨치기 위해 물
 가에서 연회를 열어 술 마시며 노는 것) 행사에 들어갔음을 말한다.(朏魄雙交,
 謂月之三日也. 月氣參變, 謂三月也. 此說入修禊.)

郊餞有壇⁴⁶⁾, 君舉有禮 교외에서 전별하기에 높은 제단 쌓아놓으니, 군
 왕의 거동에는 예의가 있노라

幕帷蘭甸⁴⁷⁾, 畫流高陞⁴⁸⁾ 난초 핀 물가 언덕에 장막과 휘장 쳐 놓고, 높은
 섬돌 계단 옆에 물길을 끌어들었네

分庭薦樂, 析波浮醴⁴⁹⁾ 제각각 나누어 음악을 바치고, 물결을 가르며 술
 잔을 띄우네

豫同夏諺⁵⁰⁾, 事兼出濟 즐거움은 하나라는 옛 속담과 같을지니, 어려움
 은 함께 나눠 헤쳐 나갈 지니라

仰閱豐施, 降惟微物⁵¹⁾ 풍성한 은총을 우리러보매, 미천한 제게도 내려

43) ○化際: 태평시절을 가리킴.
 44) ○鑄飲: 《詩經·小雅·魚藻》: “왕이 있어 호경에 계시니, 고루고루 즐겁게 술을 마시네 (王在在鑄, 豈樂飲酒)”의 전고가 있음. ‘호(鑄)’는 서주(西周)의 경성(京城)으로, 현재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쪽에 위치한다.
 45) ○洛宴: 《齊諧記》에 “예전에 주공께서 낙음을 정할 때,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마셨네 (昔周公卜洛邑, 因流水以汎酒)”라는 전고가 보임.
 46) ○餞: 여기서는 여러 왕과 전별하는 것을 가리킴.
 47) ○蘭甸: 난초 피어난 물가 언덕을 가리킴.
 48) ○畫流: 땅을 파서 물길을 트다. ○陞: 섬돌 계단.
 49) ○浮醴: ‘부상(浮觴)’의 의미로, 술잔을 물에 띄우는 것을 가리킴.
 50) ○豫同夏諺: 《孟子》에 “우리의 왕께서 편치 않으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돕겠는가(吾王不豫, 吾何以助)”라고 언급한 전고가 있다.
 51) ○微物: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주셨네

三妨儲隸, 五塵朝黻⁵²⁾

저는 세 차례나 태자를 모셨고, 다섯 번은 조정
에서 관직 더럽혔었네

逵泰命屯⁵³⁾, 思充報屈

길은 순탄했으나 명운은 험난하였으니, 은혜에
보답코자 해도 부족했었네

有悔可悛⁵⁴⁾, 滯瑕難拂⁵⁵⁾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더러운 것
쌓인 것은 털어내기 어렵다네

○沈評: ‘미물(微物)’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삼방(三妨)’, ‘오진(五塵)’은 자신이 맡았던 관직의 지위를 말함이다. 8장의 순서에는 장법이 있으나, 금을 만들고 옥을 다듬는 듯하여, 깊이 잠겨 고민해도 무방할 것으로, 이상은(李商隱)이 말한 이른바 시구가 기이하고 시어가 무겁다라는 것이 아닌가? (微物, 自謂也. 三妨, 五塵, 謂己所歷之官位. 八章次序有法, 追金琢玉, 不妨沉悶, 義山所謂句奇語重者耶.)

< 교사가 2수(郊祀歌二首) >

夤威寶命⁵⁶⁾, 嚴恭帝祖

신성한 천명을 경외하며, 상제와 조상을 공경하네
炳海表岱⁵⁷⁾, 系唐胄楚⁵⁸⁾ 황해는 밝게 빛나고 태산을 떠받드니, 당요를 이
었고 초원왕의 뒤를 이으셨네

靈監睿文⁵⁹⁾, 民屬睿武⁶⁰⁾

신령은 황제의 문덕을 밝게 살피고, 백성은 황제

52) ○妨, 塵: 모두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임.

53) ○泰, 屯: 모두 《周易》에 나오는 괘(卦)의 이름으로, 태(泰)는 ‘통달(通達)’의 의미이고, 둔(屯)은 ‘갇가(坎坎)’, 즉 ‘험난하고 힘들다’는 의미이다.

54) ○悛: 잘못을 바로 잡다.

55) ○滯瑕: 더러운 것이 쌓이다.

56) ○夤威: ‘경외하다’의 의미임. ○寶命: ‘천명(天命)’을 가리킴.

57) ○炳: ‘밝게 비춘다’는 의미임. ○表: ‘칭찬하다’의 의미임. ○海岱: 황해(黃海)와 태산(泰山)을 가리킴.

58) ○系唐: < 東京賦 >에 “당요의 혈통을 따르고, 한대의 계통을 이었네(系唐統, 接漢緒)”라는 전고(前考)가 있음. ○胄楚: ‘胄’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 ‘楚’는 한 대(漢代) 초원왕(楚元王)을 가리킴.

의 무덕을 주목하네

奄受敷錫⁶¹⁾, 宅中拓宇⁶²⁾ 하늘의 보살핌을 크게 받으니, 가운데 거하시며
영토를 넓히시네

亘地稱皇, 罄天作主⁶³⁾ 땅 끝까지 황제를 칭하고, 모든 천하의 주인이
되네

月竈⁶⁴⁾來賓, 日際奉土 달이 지는 서쪽 끝에서도 손님이 되어 오고, 해
가 뜨는 동쪽 끝에서도 토산물 바치네

開元時正⁶⁵⁾, 禮交樂舉⁶⁶⁾ 나라를 세움에 역법을 바르게 새로 정하고, 예로
써 교류하고 음악으로써 거동하네

六典聯事⁶⁷⁾, 九官列序⁶⁸⁾ 육전으로써 일을 처리하고, 구관은 그 순서가 정연
하네

有牲在滌⁶⁹⁾, 有絮在俎⁷⁰⁾ 순색의 제물 소는 제기 위에 있고, 정결한 제물
은 적대위에 있네

薦饗王衷, 以答神祐 왕의 충심을 바치시니, 신령께서 복으로 답하시네

○沈評: 《상서》에 이르기를, “황해, 태산 및 회하(淮河)는 서주이다”라고 했다. <동도부>에 이르기를, “당요의 혈통을 따르고, 한대의 계통을 이었네”라고 했다. 심약의 《상서》에 이르기를, “고조는 팽성 사람으로 초원왕의 후예이다. 팽성은 서주의 경계에 있다. ‘취(竈)’는 동굴(窟)과 같다”라고 했다.

59) ○靈監: 신령이 밝게 살핌. ○睿文: 황제의 문덕(文德)을 가리킴.

60) ○睿武: 황제의 무덕(武德)을 가리킴.

61) ○奄: ‘크다(大)’의 의미임.

62) ○拓宇: ‘영토를 개척하다’의 의미임.

63) ○罄天: 모든 천하를 가리킴.

64) ○月竈: 달을 의미함.

65) ○開元時正: 나라를 세움에 새로이 역법을 정하는 것을 일컫음.

66) ○禮交樂舉: 《禮記》에 “예로써 교차하며 당상에서 움직이고, 음악으로써 교차하며 당하에서 호응하네(禮交動乎上, 樂交應乎下)”라는 전고가 보임.

67) ○六典: 《周禮》에서 언급한 나라를 다스리는 여섯 가지 법인 治, 禮, 教, 政, 刑, 事를 가리킴.

68) ○九官: 중국 堯舜시대에 왕을 보좌하던 아홉 개의 관직.

69) ○滌: 제사에 올리는 희생물로, 털빛이 순색(純色)인 소.

70) ○滌, 俎: 모두 제사에 쓰이는 제기를 가리킴. 조(俎)는 도마처럼 생긴 제기인 적대.

(《尚書》曰, 海岱及淮惟徐州, <東都賦>曰, 系唐統, 接漢緒. 沈約《尚書》曰, 高祖, 彭城人, 楚元王之後也. 彭城, 徐州之境. 竈, 同窟.)

維聖饗帝, 維孝饗親⁷¹⁾ 오직 성인만이 상제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오직 효자만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네
皇乎備矣⁷²⁾, 有事上春⁷³⁾ (효덕을) 크게 잘 갖추었기에, 정월의 제사를 올
리는구나
禮行宗祀⁷⁴⁾, 敬達郊禋⁷⁵⁾ 조상에게 제사의 예를 올리니, 공경함은 교외에
서 올리는 하늘에 대한 제사에 미치네
金枝中樹⁷⁶⁾, 廣樂四陳 황금 장식 등은 가운데 꽂아 있고, 성대한 음악
은 사방에 퍼지네
陟配在京⁷⁷⁾, 降德在民 조상은 서울에서 배향되니, 백성에게 덕이 내려
지네
奔精昭夜⁷⁸⁾, 高燎揚晨 유성은 밤하늘을 환히 가로지르고, 높이 피운 햇
불은 새벽까지 환하네
陰明浮燦⁷⁹⁾, 沉禁深淪⁸⁰⁾ 북쪽에 별은 환히 떠오르니, 액운을 막기 위해
깊은 물에 제사 지내네
告成大報⁸¹⁾, 受釐元神⁸²⁾ 하늘에 제를 올려 성공을 고하니, 하늘의 신이

71) ○維聖饗帝, 維孝饗親: 《禮記》에 “오직 성인이라야 상제에게 제사지내는 일을 하고, 효자만이 부모에게 제사지내는 일을 한다(唯聖人爲能饗帝, 孝子爲能饗親)”라는 전고가 있음.

72) ○皇: 여기서는 ‘크다(大)’의 의미임.

73) ○上春: 음력 정월(正月)을 가리킴.

74) ○宗祀: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을 가리킴.

75) ○郊禋: 교외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예를 가리킴.

76) ○金枝: 여기서는 금으로 장식을 등을 가리킴.

77) ○陟配在京: 《詩經·大雅·下武》: “세 왕은 하늘에 계시고, 왕계선 서울에서 그분들 뜻 받으시네(三後在天, 王配於京)”라는 전고가 있음.

78) ○奔精: 여기서는 ‘유성(流星)’을 가리킴.

79) ○陰明: 북방하늘에 뜨는 별을 가리킴.

80) ○沉禁: 고대 제사의 한 종류로, 제앙을 막기 위해 물에 올리는 제사. ○深淪: 깊은 물.

81) ○大報: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함.

82) ○釐: ‘복(福)’과 같은 의미임. ○元神: 하늘의 신을 가리킴.

내리는 복을 받도다

月御按節⁸³⁾, 星驅扶輪

달 수레 모는 신은 고삐를 늦춰 천천히 몰고, 별
마부는 옆에서 수레바퀴 굴리네

遙興遠駕⁸⁴⁾, 𨇗𨇗振振⁸⁵⁾

일어나 멀리 수레 몰고 가니, 번개 치고 우레는
쿵쿵 거리는구나

○沈評: ‘분정(奔精)’은 유성(流星)이다. 송나라는 물의 덕에 속하고 진성(辰星)을 주관한다. 따라서 음명(陰明)의 별자리가 환히 떠올라 밝게 빛나는 것이다. 침영(沉滯)은 제사 지내는 바가 깊이 빠지는 것이기에 고요한 것이다. 영(滯)은 제사명이다. ‘월어(月御)’ 두 구절은 하늘의 신이 내려오니 달 수레 모는 신은 그를 위해 고삐 늦추고, 별 마부는 그를 위해 수레바퀴 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奔精, 星流也. 宋爲水德而主辰, 故陰明之宿⁸⁶⁾, 浮爍而陽光. 沉滯, 所祭沉淪而沉靜也. 滯, 祭名. 月御二句, 言天神降而月御爲之按節, 星驅爲之扶輪也.)

<왕태상에게 드림(贈王太常)>⁸⁷⁾

玉水記方流⁸⁸⁾

옥이 나는 곳의 강물은 직각으로 흐른다고 적혀있고

琬源載圓折⁸⁹⁾

진주 나는 곳의 강물은 둥그렇게 흐른다고 적혀있다네

蓄寶每希聲⁹⁰⁾

쌓여있는 보물은 항상 조금의 소리도 없을지니

83) ○月御: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달을 위해 수레를 모는 신, 혹은 달을 가리킴. ○按節: 고삐를 늦춰 천천히 가다.

84) ○遙興: 일어나 멀리가다.

85) ○振振: 쿵쿵대는 우레 소리.

86) ○《文選》에 “장선이 주를 달기를 ‘송나라는 물의 덕에 속하고, 북방의 진성을 주관한다. 진성은 음명이다’라고 하였다(張銑注, 宋水德, 主北方辰星, 辰星爲陰明)”라는 전고가 있음.

87) ○王太常: 왕승달(王僧達)을 가리키며, 태상(太常)의 벼슬을 하였음.

88) ○玉水記方流: 《尸子》에 “무릇 물은, 그 직각으로 꺾이는 곳에는 옥이 있고, 그 둥그렇게 꺾이는 곳에는 구슬이 있다(凡水, 其方折者有玉, 其圓折者有珠也)”라는 전고가 있음.

89) ○琬源: 구슬이 나는 곳의 물.

90) ○希聲: ‘소리가 없음(無聲)’과 같은 의미임. 《老子》에 “커다란 소리는 소리가 없다(大聲希聲)”라는 전고가 있음.

雖秘猶彰徹 ⁹¹⁾	비록 은밀할지라도 그 모습은 확연히 드러난다네
聆龍睽九淵 ⁹²⁾	공손히 용의 신음소리 듣고 세밀히 깊은 물속 주시하며
聞鳳窺丹穴 ⁹³⁾	봉황 소리 듣고 단혈산을 찾아본다네
歷聽豈多士 ⁹⁴⁾	두루 들어보아도 어찌 현량한 선비 많을까마는
巋然觀時哲 ⁹⁵⁾	우뚝 솟은 당대의 인재를 만났다네
舒文廣國華 ⁹⁶⁾	문장을 지음에 나라의 보물 널리 알렸고
數言遠朝列 ⁹⁷⁾	글을 펼침에는 조정의 일 멀리 했다네
德輝灼邦懋 ⁹⁸⁾	도덕의 빛남은 나라의 흥성을 더욱 밝혔고
芳風被鄉耆 ⁹⁹⁾	향기의 바람은 시골의 노인들에게도 미치었다네
側同幽人居 ¹⁰⁰⁾	은자 같이 편벽한 곳에 기거하니
郊扉常晝閉	교외의 사립문은 항상 낮에도 닫혀있다네
林間時晏開	숲 속의 마을 문은 때때로 늦게 열렸으니
亟迴長者轍 ¹⁰¹⁾	수차례 덕망 있는 어른의 수레는 돌아 나갔네
庭昏見野陰	정원 어둑해지니 들녘 어두워지는 것 보고
山明望松雪	산 밝아지니 눈 쌓인 소나무 바라본다네
靜惟浹群化 ¹⁰²⁾	고요한 생각이 주위 만물의 변화에 미쳤기네
徂生入窮節 ¹⁰³⁾	말년엔 가난속의 절개를 지켜나갔네

91) ○彰徹: 분명하다, 뚜렷하다는 의미임.

92) ○睽: 세밀하게 응시하다, 주시하다는 의미임. ○九淵: 《莊子》: “천금의 값이 나가는 비싼 구슬은, 반드시 깊은 연못 속에 있는데, 흑룡의 턱밑에 있다(夫千金之珠, 必在九重之淵, 而驪龍頷下)”라는 전고가 있음.

93) ○丹穴: 단혈산. 산의 이름으로, 《山海經》에 “단혈산에는 새가 있는데, 그 모양이 학 같으며, 다섯 가지 빛이 나니 이름을 봉황이라 불렀다(丹穴之山有鳥焉, 其狀如鶴, 五彩, 名曰鳳凰)”라는 전고가 있음.

94) ○歷聽: 두루 다 들어봄.

95) ○巋然: 홀로 우뚝 솟은 모양. ○觀: 만나다. ○時哲: 당대의 현량한 인물.

96) ○舒文: 문장을 짓다. ○國華: 나라의 보물.

97) ○數言: 글을 펼치다.

98) ○邦懋: 국가가 흥성하는 모양.

99) ○鄉耆: 시골의 노인을 가리킴.

100) ○側: 편벽한 곳으로 가다. ○幽人: 은일자(隱逸者)와 같은 의미임.

101) ○亟: 여러 번, 수차례의 의미임.

102) ○惟: ‘생각하다(思)’의 의미와 같음. ○浹: ‘두루 미치다’의 의미임. ○群化: 만물의 변화.

豫往誠歡歇 즐거움 지나가면 진실로 기쁨은 사그라지나
 悲來非樂閑¹⁰⁴⁾ 슬픔이 와도 즐거움은 다한 것 아니라네
 屬美謝繁翰¹⁰⁵⁾ 미덕을 묘사함에 풍부한 수식 부족함이 부끄러우니
 遙懷具短札 멀리서 그리워하며 짧은 편지 바치나이다

○沈評: 《시자》에 이르기를, 무릇 물은 그 직각으로 꺾이는 곳에는 옥이 있고, 그 둥그렇게 꺾이는 곳에는 구슬이 있다라고 했다. ‘규(睽)’는 살핀다는 뜻이다. 사용한 필치가 너무 무거워, 시인의 본색은 아니다. (《尸子》曰, 凡水, 其方折者有玉, 其圓折者有珠. 睽, 察也. 用筆太重, 非詩人本色.)

<여름밤에 사촌형 散騎常侍와 車長沙令에게 바침(夏夜呈從兄散騎車長沙)>¹⁰⁶⁾

○沈評: 산기의 자는 경종이다. 차장사의 자는 중원이다. (散騎, 字敬宗. 車長沙, 字仲遠)

炎天方埃鬱¹⁰⁷⁾ 뜨거운 여름엔 바야흐로 먼지 쌓이더니
 暑晏閑塵紛 늦더위 사그라지며 먼지가 사라지네
 獨靜闕偶坐¹⁰⁸⁾ 홀로 고요히 경성에서 마주 대하고 앉으니
 臨堂對星分 당상 옆에서 하늘 보며 별을 헤이네
 側聽風薄木¹⁰⁹⁾ 귀 기울여 바람에 나무 흔들거리는 소리 듣고
 遙睇月開雲 멀리 구름 열고 나오는 달을 힐끗 바라보누나
 夜蟬當夏急 밤 매미는 여름 맞아 가쁘게 울고
 陰蟲先秋聞¹¹⁰⁾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가을 앞서 들리네
 歲候初過半 한해의 절기 막 반을 지났으니

103) ○徂生: ‘여생(餘生)’을 가리킴.

104) ○閑: ‘끝나다’, ‘다하다’의 의미.

105) ○屬: 여기서는 ‘글을 짓다’의 의미임. ○謝: 여기서는 ‘부끄러워하다(慙愧)’의 의미임.

106) ○從兄散騎: 안연지의 사촌형인 顏敬宗을 가리킴. ○車長沙: 車仲遠을 가리킴.

107) ○鬱: ‘쌓이다(積)’의 의미.

108) ○闕: 왕이 거거하는 궁궐로, 여기서는 ‘경성(京城)’을 가리킴. ○偶坐: 마주하고 앉다.

109) ○薄: 여기서는 ‘흔들리다’의 의미임.

110) ○陰蟲: 귀뚜라미와 같은 가을벌레를 가리킴.

荃蕙豈久芬¹¹¹⁾ 향초는 어찌 오래도록 향기로우랴
 屏居惻物變¹¹²⁾ 물러나 은거하니 사물의 변화에 슬프고
 慕類抱情殷¹¹³⁾ 짝을 그리니 품은 정은 은근하다네
 九逝非空思¹¹⁴⁾ 이리저리 아홉 번이나 드는 것은 헛된 생각 아닐지니
 七襄無成文¹¹⁵⁾ 일곱 번이나 자리 옮겨도 아름다운 문장 쓰지 못하네

○沈評: 《초사》에 이르기를, “영도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어도, 나의 영혼은 하루 밤에도 아홉 번이나 다녀오네”라고 하였다.(《楚辭》曰, 惟郢路之遼遠兮, 魂一夕而九逝.)

<북쪽 낙양으로 사신으로 가며(北使洛)>

○沈評: 《송서》에 이르기를 “안연지가 낙양으로 가던 길에 지은 것이다. 문장의 문체가 아름다워 사회와 전랑의 찬양을 받았다”라고 하였다.(《宋書》曰, 延之洛陽道中作. 文辭藻麗, 爲謝晦, 傅亮所賞¹¹⁶⁾.)

改服飭徒旅¹¹⁷⁾ 옷 바꿔 입고 수행 무리 정돈하여
 首路踰險巖¹¹⁸⁾ 길 떠나나 좁고 구불구불 험난하고 힘들구나
 振楫發吳洲¹¹⁹⁾ 노를 저어 오나라 땅에서 출발하니
 秣馬陵楚山¹²⁰⁾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초나라 산에 오르네

111) ○荃蕙: 모두 향초의 종류임.
 112) ○屏居: 물러나 은거하며 기거함. ○惻: ‘슬퍼하다’의 의미임.
 113) ○慕類: 짝을 그리워하다.
 114) ○九逝: 《楚辭·九章》에 “영도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어도, 나의 영혼은 하루 밤에도 아홉 번이나 다녀오네(惟郢路之遼遠兮, 魂一夕而九逝)”라는 전고가 있음.
 115) ○七襄: 일곱 번 자리를 이동한다는 의미임. 《詩經·小雅·大東》에 “비록 일곱 자리를 옮기지만, 비단 무늬는 못 짜네(雖則七襄, 不成報章)”라는 전고가 있음.
 116) ○謝晦: 사희(390-426)의 자(字)는 ‘宣明’으로, 東晉의丞相인 謝安의 형인 謝據의 증손자이다. 東晉末과 劉宋의 중요한 관리로, 徐羨之, 傅亮와 함께 宋少帝를 폐위 시키고 宋文帝를 옹립했으나 후에 宋文帝와 대립 후 죽음을 당한다.
 117) ○飭: ‘정돈을 하다’의 의미임. ○徒旅: 함께 따라가는 수행 무리들.
 118) ○首路: ‘길을 떠나다’의 의미임. ○踰: 여기서는 ‘좁고 구불구불하다’의 의미임.
 119) ○振楫: ‘노를 젓다’의 의미임. ○吳洲: 여기서는 ‘강남의 오나라의 땅’을 범칭하고 있음.
 120) ○秣馬: ‘말에게 먹이를 주다’의 의미임. ○楚山: ‘초나라 산’으로, 여기서는 양자강(揚子

塗出梁宋郊¹²¹⁾ 길 도중엔 양나라와 송나라의 교외가 보이고
 道由周鄭間¹²²⁾ 길은 주나라 도읍과 정나라 도성 사이를 지나네
 前登陽城路¹²³⁾ 앞으로는 양성의 길에 올라
 日夕望三川¹²⁴⁾ 해 저물녘 삼천을 바라보네
 在昔輟期運¹²⁵⁾ 옛 왕조는 운세가 쇠해 다했으니
 經始闢聖賢¹²⁶⁾ 나라 경영 시작했으나 어진 자는 많지 않았네
 伊瀧絕津濟¹²⁷⁾ 이수와 곡수에선 나루 건널 수 없고
 臺館無尺椽¹²⁸⁾ 누대와 객관엔 한 척의 서까래도 없구나
 宮陸多巢穴¹²⁹⁾ 궁궐 섬돌엔 새 둥지 짐승 동굴 많고
 城闕生雲烟¹³⁰⁾ 성문 누대엔 구름 연기 피어나네
 王猷升八表¹³¹⁾ 왕도는 온 세상 밖까지 미쳤으나
 嗟行方暮年¹³²⁾ 아, 나의 사신 길은 바야흐로 연말이구나
 陰風振涼野 음산한 바람은 차가운 벌판에 일고
 飛雪翳窮天¹³³⁾ 날리는 눈발은 마지막 겨울 하늘을 어둡게 뒤덮네
 臨塗未及引¹³⁴⁾ 길에 임하나 나아가지 못하고

江) 중하류의 산릉을 가리킴.

- 121) ○梁宋: 여기서는 선진(先秦)시기의 양(梁)나라, 송(宋)나라에 속하던 황하(黃河) 중하류의 지역을 가리킴.
- 122) ○周鄭: 여기서는 주(周)나라의 도성인 낙양(洛陽)과 정(鄭)나라의 도읍인 신정(新鄭) 일대를 가리킴.
- 123) ○陽城: 춘추시기의 정(鄭)나라의 읍성(邑城)명으로, 현재의 하남성(河南省) 등봉현(登封縣) 동남쪽에 위치한다.
- 124) ○三川: 전국시기의 군명(郡名)으로, 이곳에선 황하(黃河), 낙수(洛水), 이수(伊水)의 세 강이 만난다.
- 125) ○在昔: '예전'의 의미로, 여기서는 '동진(東晉) 왕조(王朝)'를 암시한다. ○輟: '끝나다', '그치다'의 의미임.
- 126) ○經始: '경영을 시작하다'의 의미임. ○闢: 여기서는 '멀다(遠)'의 의미임.
- 127) ○伊瀧: 이수(伊水)와 곡수(瀧水) 두 물줄기를 가리킴.
- 128) ○椽: '서까래'를 가리킴.
- 129) ○宮陸: '궁궐의 섬돌 계단'을 가리킴.
- 130) ○城闕: '성문의 누대'를 가리킴.
- 131) ○王猷: 여기서는 '왕도(王道)'의 의미임. ○八表: '팔방(八方)'과 같은 의미임.
- 132) ○行: 여기서는 '궤다', '경험하다'의 의미임.
- 133) ○翳: 가려져서 어두운 모양을 가리킴. ○窮天: '한해가 끝 날 무렵의 시기'를 가리킴.

置酒慘無言 술자리 펼치나 참담히 말을 못 잇네
 隱閔徒御悲¹³⁵⁾ 마음 속 깊은 슬픔은 억누르려 해도 소용이 없고
 威遲良馬煩¹³⁶⁾ 구불구불 끝없는 길에 준마는 피곤하다네
 遊役去芳時¹³⁷⁾ 밖에서 떠돌며 벼슬살이하다보니 꽃다운 시절은 가고
 歸來屢徂讎¹³⁸⁾ 돌아가려해도 여러 차례 시기를 놓쳤다네
 蓬心既已矣¹³⁹⁾ 쭉같이 꼬불꼬불 얇은 견해는 이미 이와 같으니
 飛薄殊亦然¹⁴⁰⁾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 특히나 이렇다네

○沈評: 《포박자》에 이르기를, “옛날의 기록으로 그것을 들어보니, 성인은 태어나면 대체로 오백년은 드물다”라고 하였다. 황폐한 궁터에 가장만 자란 망국의 감상과 행역의 비통함의 정과 뜻이 막힘없이 높게 울린다.(《抱朴子》曰, 聞之前志, 聖人生率闕五百歲. 黍離之感, 行役之悲, 情旨暢越.)

<다섯 군자를 노래하다 5수(五君詠五首)>

○沈評: 죽림칠현 가운데 산도와 왕웅은 높은 벼슬을 향유했기에 배제되었다.(竹林七賢, 山濤, 王戎, 以貴顯被斥.)

阮步兵(완적)

阮公雖淪迹¹⁴¹⁾ 완적은 비록 그 종적을 숨기었어도
 識密鑿亦洞¹⁴²⁾ 견식이 세밀하고 관찰 또한 심오했네

134) ○引: 여기서는 '나아가다(進)'의 의미임.
 135) ○隱閔: 마음속으로 남몰래 비통해 함.
 136) ○威遲: 구불구불 끝이 없는 모양. ○煩: 여기서는 '피곤하다(疲倦)'의 의미임.
 137) ○遊役: 타지에서 떠돌며 벼슬하는 것을 가리킴.
 138) ○徂讎: '시기를 놓치고 시간을 질질 끌다'의 의미임.
 139) ○蓬心: 쭉 같은 마음, 즉 여기서는 꼬불꼬불 좀생이 같이 얇은 지식이나 견해를 가리킴. 《莊子·逍遙遊》에 “그대는 마치 쭉같이 꼬불꼬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夫子猶有蓬之心也夫)”라는 전고가 있음.
 140) ○飛薄: 이리저리 날며 떠도는 것을 가리킴.
 141) ○阮公: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 210-263)을 가리킴. 위진(魏晉) 교체시기의 명사(名士)로 보병교위(步兵校尉)의 관직을 역임한 바 있어, 세칭 완보병(阮步兵)으로 불렸다. ○淪迹: 종적을 숨겨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않음.
 142) ○識密: 견식이 세밀한 것을 가리킴. ○洞: 심오하고 그윽한 것을 가리킴.

沈醉似埋照¹⁴³⁾ 술에 몹시 취한 것은 빛나는 재능을 숨기기 위함인 듯하며
 寓辭類托諷¹⁴⁴⁾ 글 속의 숨은 뜻은 마치 풍자를 기탁한 것 같다네
 長嘯若懷人¹⁴⁵⁾ 긴 휘파람 소리는 마치 옛 사람을 그리워하는 듯하고
 越禮自驚衆 예교를 뛰어넘으며 스스로 많은 사람 놀래키네
 物故不可論¹⁴⁶⁾ 세상의 정치를 논할 수 없었으니
 途窮能無慟¹⁴⁷⁾ 길이 끊긴 곳에서 큰소리로 울지 않을 수 있었으랴

嵇中散(혜강)

中散不偶世¹⁴⁸⁾ 혜강은 세속의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하였으니
 本自餐霞人¹⁴⁹⁾ 본래 스스로 신선이었네
 形解驗默仙¹⁵⁰⁾ 형체는 남겨두고 조용히 신선이 되었으며
 吐論知凝神¹⁵¹⁾ 이론을 내뱉음에 정신을 고요히 집중하는 경지를 알았네
 立俗迂流議¹⁵²⁾ 속세에서 입신했으나 세속의 의론을 따르지 않았으니

143) ○埋照: '빛을 거두어 숨기다'의 의미임.
 144) ○寓辭: 시문(詩文)에 사용된 숨은 뜻. ○托諷: 글에 기탁하여 풍자함.
 145) ○長嘯: 긴 휘파람 소리. 《晉書·阮籍傳》에 위(魏)나라 완적(阮籍)이 소문산(蘇門山)에서 은자(隱者)를 만나서 태고(太古)의 무위지도(無爲之道)와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의리(義理)를 이야기했는데도 들은 체도 하지 않자 완적이 긴 휘파람(長嘯)을 불며 헤어졌는데, 은자가 그냥 빙그레 웃고 있더니 완적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 은자가 부는 휘파람 소리가 마치 난봉(鸞鳳)의 울음소리처럼 완적의 귓가를 울렸다는 고사가 있음.
 146) ○物故: '세상사' 혹은 '속세의 일'을 가리킴.
 147) ○途窮能無慟: 《晉書·阮籍傳》에 "때때로 맘이 동하면 홀로 수레를 몰고 나가 정해진 길도 없이 가다가 수레 자취 다한 곳에서 문득 큰 소리로 서럽게 울다가 돌아왔다(時率意獨駕, 不由徑路, 車跡所窮, 輒慟哭而反)"라는 전고가 있음.
 148) ○中散: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嵇康, 223-262)을 가리킴. 자(字)는 숙야(叔夜)이며 위의 왕족과 결혼하고 중산대부(中散大夫)로 승진하여, 세칭 혜중산(嵇中散)으로 불렸다. 부정을 용서하지 않는 성격과 반유교적사상(反儒教的思想)으로 당시 권력층의 미움을 받았으며, 친구가 일으킨 사건에 말려들어 처형되었다. ○不偶世: '세속의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임.
 149) ○餐霞人: 도교의 수련에서 노을을 먹고 이슬만 마시는 도법으로, 여기서는 즉 신선(神仙)을 가리킴.
 150) ○形解: 도교에서 몸은 남겨두고 혼백만 빠져나가 신선이 되는 도술을 가리킴. 顧凱之의 《嵇康傳》에 혜강이 몸은 남겨 두고 신선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151) ○吐論: 여기서는 혜강이 저작한 <養生論>을 가리킴. ○凝神: 정신이 고요히 하나로 집중되는 수련의 경지를 가리킴.
 152) ○立俗: 속세에서 입신하다. ○迂: '어긋나다'의 의미임. ○流議: '세속의 의론'을 가리킴.

尋山洽隱淪¹⁵³) 산을 찾아 은사를 가까이 했네
 鸞翮有時鍛¹⁵⁴) 난봉의 날개는 때때로 꺾였지만
 龍性誰能馴¹⁵⁵) 용의 기상을 그 누가 길들일 수 있으랴

○沈評: 《환자신론》에 이르기를, “성인은 모두 형체를 버리고 혼백이 빠져나가 신선이 되어 갔다”라고 했다.(《桓子新論》曰, 聖人皆形解仙去.)

劉參軍(유령)

劉伶善閉關¹⁵⁶) 유령은 문을 걸어 잠그기를 잘하였으며
 懷情減聞見¹⁵⁷) 감정은 보고 들은 것에 동요되지 않았단네
 鼓鐘不足歡¹⁵⁸) 북과 종의 음악으로도 즐겁기에 부족했으니
 榮色豈能眩¹⁵⁹) 화려한 꽃빛깔에 어찌 미혹되었으랴
 韜精日沈飲¹⁶⁰) 자신의 재주를 숨기고 날마다 술에 빠졌으니
 誰知非荒宴¹⁶¹) 주연에 빠진 게 아님을 그 누가 알라
 頌酒雖短章¹⁶²) <주덕송>은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深衷自此見¹⁶³) 마음속의 진심은 이것으로 볼 수 있다네

○沈評: 《노자》에 이르기를, “잘 닫는 자는 열쇠를 채우지 않아도 열 수 없다”라고 했다. 도덕이 안에 충만하면 감정과 욕망이 모두 끊어진다는 것을

153) ○洽: 여기서는 ‘가까이 하다’의 의미임. ○隱淪: ‘은일자(隱逸者)’ 혹은 ‘은사(隱士)’를 가리킴.

154) ○鍛: 여기서는 ‘날개를 다치다’의 의미임.

155) ○龍性: 《晉書·嵇康傳》에 종회(鍾會)가 사마소(司馬昭)에게 “혜강은 누워있는 용이니, 일으켜서는 안 되오(嵇康臥龍也, 不可起)”라고 말한 전고(典故)가 있음.

156) ○劉伶: 유령(약221-300)의 자(字)의 백륜(伯倫)으로, 성격은 거침이 없고 술을 매우 좋아했으며 관직은 건위참군(建威參軍)을 역임한 바 있다. ○閉關: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의 손님과 왕래를 하지 않음.

157) ○懷情: 여기서는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158) ○鼓鐘: 북과 종으로, 여기서는 이것으로 ‘음악’을 범칭하고 있음.

159) ○榮色: ‘화려한 꽃의 빛깔’을 가리킴.

160) ○韜精: ‘자신의 재주를 숨기다’의 의미임.

161) ○荒宴: 과도한 주연(酒宴)으로 공무를 돌보지 않음.

162) ○頌酒: 유령이 일찍이 <酒德頌>을 지은 것을 가리킴.

163) ○深衷: ‘마음속의 진심’을 가리킴.

말한 것이다.(《老子》曰, 善閉者無關鍵而不可開. 言道德內充, 情欲俱閉也.)

阮始平(완함)

- 仲容靑雲器¹⁶⁴) 완함의 재주는 푸른 하늘의 구름에 닿을 듯하니
 實稟生民秀¹⁶⁵) 실로 타고 태어나기를 사람들 중에 최고라네
 達音何用深¹⁶⁶) 음률에 통달함에 깊을 필요 있는가
 識微在金奏¹⁶⁷) 건식의 정미함은 종 연주 같은 음악에 있었네
 郭奕已心醉¹⁶⁸) 광혁은 이미 그에게 심취했고
 山公非虛觀¹⁶⁹) 산공도 근거 없이 그를 알아본 것 아니라네
 屢荐不入官¹⁷⁰) 여러 번 천거했으나 궁에 들지 못했으나
 一麾乃出守¹⁷¹) 한 번의 휘두름에 바로 내쳐 좌천 되었네

164) ○仲容: 완함(阮咸, 생졸년미상)의 자(字)는 중용(仲容)으로, 완적의 조카이다. 죽림칠현의 한 사람으로 관직은 시평태수(始平太守)를 역임한 바 있다. ○靑雲器: 푸른 하늘의 구름에 닿을 듯한 높고 큰 재주.

165) ○稟: 여기서서는 '타고 태어나면서 받은 성품'을 가리킴.

166) ○達音: 음률에 통달함. 《晉諸公贊》에 “중호군장사 완함이 논의하기를, ‘순육이 만든 음악은 그 소리가 높으니, 소리가 높으면 비통하며, 망국의 음악은 슬프고 시름겹다. 지금 그 소리는 아악에 부합되지 않으니, 덕치와 중화의 훌륭한 점이 못될 것이 두렵다. 틀림 없이 옛날과 지금의 동척의 길이가 같지 같음에서 생긴 결과 일 것이다’라고 했다. 후에 땅을 파다가 옛날의 동척을 발견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썩어 문드러지려 했다. 이 동척으로 순육이 음악을 만들 때 쓴 동척을 재어보니 4푼이 짧았다. 이에 세상 사람들은 완함을 신해라고 불렀다. (中護軍長史阮咸倡議, ‘荀勗所造樂聲高, 聲高則悲, 亡國之音哀以思, 今聲不合雅, 懼非德政中和之善, 必古今尺長短之所致. 後掘地得古銅尺, 歲久欲腐壞, 以此尺度於勗今尺, 短四分. 時人名咸爲神解’)라는 전고가 있음.

167) ○金奏: 종과 같은 금속 악기를 가리킴.

168) ○郭奕已心醉: 《名士傳》에 “완함의 슬픈 음악이 이르자 세상 사람들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기에, 태원의 광혁은 그것을 보고 심취하여 자신도 모르게 탄복하였다(阮咸哀樂至, 過絕於人. 太原郭奕見之心醉, 不覺歎服)”라는 전고가 있음.

169) ○山公: 산도(山濤)를 가리킴. 산도의 《啓事》에 “완함이 만약 관직에 임했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훌륭히 처리했을 것이다(咸若在官之職, 必妙絕於時)”라는 전고가 있음.

170) ○屢荐不入官: 曹嘉之의 《晉紀》에 “산도는 완함을 이부랑으로 천거하여 세 번이나 문장을 지어 올렸으나 무제는 임명할 수 없었다(山濤舉咸爲吏部郎, 章三上, 武帝不能用)”라는 전고가 있음.

171) ○出守: 《晉諸公贊》에 “순육은 성격이 오만했는데, 일로 인해 좌천시켜 완함은 시평태수가 되었다(勗性自矜, 因事左遷, 咸爲始平太守)”라는 전고가 있음.

○沈評: 완함은 슬픔과 즐거움의 감정이 지극하여 그 정도가 보통 사람보다 지극히 심하였다. 태원의 곽혁은 그것을 보고 심취하였다. 산도의 《계사》에 이르기를 “완함이 만약 관직에 임했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훌륭히 처리했을 것이다”라고 했다。(阮咸哀樂至到, 過絕於人, 太原郭奕, 見之心醉, 山濤《啓事》曰, 咸若在官之職, 必妙絕於時)

向常侍(향수)

向秀甘澹薄¹⁷²⁾ 향수는 명리에 담박함을 달가워했으며

深心托豪素¹⁷³⁾ 붓과 종이에 깊은 마음 기탁하였네

探道好淵玄¹⁷⁴⁾ 도를 탐구함에 현학의 이치를 좋아했으며

觀書鄙章句 독서를 함에는 편장자구에 천착하지 않았네

交呂既鴻軒¹⁷⁵⁾ 여안과 교유하며 큰 기러기처럼 높이 날았고

攀嵇亦鳳舉¹⁷⁶⁾ 혜강과 사귀며 또한 봉황처럼 날았네

流連河裡遊¹⁷⁷⁾ 오래오래 하내에서 노닐며

惻愴山陽賦¹⁷⁸⁾ 슬픔안고 산양에서 사구부 지었네

○沈評: 향수는 일찍이 혜강과 함께 낙읍에서 쇠를 두드렸고, 여안과는 산양에서 함께 채마밭에 물을 주었다。(秀嘗與嵇康於鍛於洛邑, 與呂安灌園於山陽。)

172) ○向秀: 향수(약227-272)의 자는 자기(子期)이며,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다. 관직은 산기상시(散騎常侍)를 역임한 바 있으며, 후에 은거하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173) ○豪素: ‘붓과 종이를 가리킴.’

174) ○淵玄: ‘심오한 현학의 이치’를 가리킴.

175) ○交呂既鴻軒: 《向秀別傳》에 “향수와 혜강, 여안은 친분을 쌓았는데, 취하고 버리는 것이 달랐다. 혜강은 고고하게 세상을 내려 보며 엄매임이 없었고, 여안은 마음대로 거침 없이 세속을 뛰어넘었으나 향수는 진아하고 반듯하게 독서를 했다(秀與嵇康呂安爲友, 趣捨不同, 嵇康傲世不羈, 安放逸適俗, 而秀雅好讀書)”라는 전고가 있다. ○軒: ‘높이 날다’는 의미임.

176) ○鳳舉: ‘봉황처럼 날다’의 의미임.

177) ○流連: ‘돌아 갈 줄 모르며 노는 모양’을 가리킴. ○河裡: 여안과 혜강이 머물렀던 하내(河內)를 가리킴.

178) ○山陽賦: 향수가 산양에서 여안, 혜강과 놀던 옛일을 그리며 지은 <思舊賦>를 가리킴.

<추호를 노래한 시 아홉수(秋胡詩九首)>179)

- 椅梧傾高鳳¹⁸⁰⁾ 의나무와 오동나무는 가지 높이 기울여 봉황 맞이하고
 寒谷待鳴律¹⁸¹⁾ 차가운 계곡은 율관 울리길 기다리네
 影響豈不懷¹⁸²⁾ 그림자와 메아리는 어찌 몸과 소리를 그리워하지 않으랴
 自遠每相匹 멀리서도 항상 서로 짝을 짓는다네
 婉彼幽閑女¹⁸³⁾ 아리따운 저 현숙한 미인은
 作嬪君子室¹⁸⁴⁾ 아내가 되어 군자의 집으로 드네
 峻節貫秋霜 준엄한 절개는 가을 서릿발 같고
 明艷侔朝日¹⁸⁵⁾ 곱고 아리따운 용모는 아침 해 같네
 嘉運旣我從 좋은 운은 이미 나를 따르니
 欣愿自此畢 기쁜 소원 이로써 이루어졌네

○沈評: 의나무, 오동나무가 봉황새가 와서 짝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차가

179) ○秋胡詩: 《樂府詩集》의 <相和歌辭·清調曲>에 <秋胡行>이라는 가사가 전해짐. 《列女傳》에 “노나라의 추호걸이라는 부인은 노나라 추호자의 부인이다. 추호자는 부인을 맞아들이고 오일 만에 떠나 진나라에서 관직생활을 했다. 오년 만에 돌아오는데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길가에서 아름다운 부인이 막 뽕을 따고 있는 것을 보았다. 추호자는 그녀가 맘에 들어 수레에서 내려 말했다. ‘지금 내가 황금이 있는데 부인에게 주고 싶소.’ 부인은 대답했다. ‘아, 뽕을 따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황금은 원치 않습니다.’ 추호자는 떠나 집에 도착했다. 황금을 그의 모친에게 드렸다. 그의 모친은 사람을 시켜 그의 부인을 불렀고 부인이 도착해서 보니 바로 이전의 뽕따던 부인이었다. 추호자는 그녀를 보고 부끄러웠다. … 마침내 집을 떠나 스스로 강에 빠져 자결하였다. (魯秋胡潔婦者, 魯秋胡子之妻. 秋胡子旣納之, 五日, 去而官於陳, 五年乃歸. 未至其家, 見路傍有美婦人方采桑, 秋胡子悅之, 下車謂曰: 今吾有金, 願以與夫人. 婦人曰: 嘻! 夫采桑奉二親, 吾不願人之金. 秋胡子遂去. 歸至家, 奉金遺其母. 其母使人呼其婦, 婦至, 乃向采桑者也. 秋胡子見之而慚. … 遂去而走, 自投河而死)”라는 전고가 보임.

180) ○椅: ‘의나무’를 가리킴. 산유자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181) ○寒谷待鳴律: 劉向의 《別錄》에 “추연이 연나라에 있을 때 어떤 골짜기에 있었는데 추워서 오곡이 자라지 않았다. 추연은 율관을 부니 따뜻한 기운이 이르렀고 기장이 자라기 시작했다(鄒衍在燕, 有谷, 寒不生五穀. 鄒子吹律而溫至, 生黍焉)”라는 전고가 있음.

182) ○影響: 그림자(影)는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響)는 소리를 따르듯이, 부부는 서로 따르고 의지함을 가리킴.

183) ○婉: ‘아름답고 고운 모양’을 가리킴. ○幽閑: ‘현숙하고 수려한 모양’을 가리킴.

184) ○嬪: ‘아내(婦)’와 같은 의미임. ○君子: 여기서는 ‘추호(秋胡)’를 가리킴.

185) ○明艷: 용모가 곱고 아리따움. ○侔: 여기서는 ‘같다(等)’과 같은 의미임.

운 골짜기가 울관을 붙어 땅이 따스하게 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짝을 이룬 것이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가 몸과 소리를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椅梧佇鳳鳥之來儀, 寒谷待吹律而成煦. 言夫婦之相匹, 如影響之相思.)

燕居未及好¹⁸⁶) 신혼의 달콤함도 다 누리지 못했는데
 良人顧有違¹⁸⁷) 남편은 오히려 떠나려 하네
 脫巾千里外 천리 밖에서 두건을 벗고
 結綬登王畿¹⁸⁸) 인수를 묶고 경성으로 올라가네
 戒徒在昧旦¹⁸⁹) 어스름 새벽에 무리에게 당부를 할 때
 左右來相依 좌우에서 모두 서로 서로 의지해 오네
 驅車出郊郭 수레 몰아 교외 성곽 밖으로 나가니
 行路正威遲¹⁹⁰) 가야할 길은 바로 구불구불 끝이 없구나
 存爲久離別 살아서는 오랫동안 이별이고
 沒爲長不歸 죽어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네

嗟余怨行役 아, 나는 이번 행역을 원망하노니
 三陟窮晨暮¹⁹¹) 여러 번 험한 산을 오르며 하루가 다 가네
 嚴駕越風寒¹⁹²) 수레를 잘 정비해 추위와 바람 이겨내고
 解鞍犯霜露¹⁹³) 안장 풀고 걸어가니 서리와 이슬을 밟네

186) ○燕居: '신혼부부의 달콤하고 편안한 생활'을 가리킴.
 187) ○良人: 여기서는 '남편'을 가리킴. ○違: 여기서는 '떠나다(離)'와 같은 의미임.
 188) ○王畿: 여기서는 진국(陳國)의 경성(京城)을 의미함.
 189) ○戒徒: 함께 따르는 무리들에게 경계의 당부를 하는 것을 가리킴. ○昧旦: '아직 어두운 새벽'을 가리킴.
 190) ○威遲: 길이 구불구불하고 끝없이 이어진 모양.
 191) ○三陟: '여러 번 험한 높은 산을 오른다'는 의미이다. 《詩經·周南·卷耳》에 "저 높은 뽕산에 오르고 싶어도, ... 저 높은 언덕에 오르고 싶어도, ... 저 돌산에 오르고 싶어도(陟彼崔嵬, ... 陟彼高岡, ... 陟彼砠矣)"라는 전고가 있음.
 192) ○嚴駕: 말과 수레를 정비하다.
 193) ○解鞍: '안장을 풀고 말에서 내려 걸어서 가는 것'을 가리킴.

原隰多悲涼¹⁹⁴) 들판에선 서글픔 많이 생겨나고
 廻飈卷高樹 회오리바람은 높은 나무 감아 오르네
 離獸起荒蹊¹⁹⁵) 무리 잃은 짐승은 황폐한 길에 뛰쳐나오고
 警鳥縱橫去 놀란 새는 이리저리 날아오르네
 悲哉遊宦子 슬프도다, 벼슬위해 떠도는 신세여
 勞此山川路¹⁹⁶) 이 산과 강 길에서 고생만 하노라

○沈評: 《시경·권이》에서 “저 높은 흙산에 오르고 싶어도, 저 높은 언덕에 오르고 싶어도, 저 들산에 오르고 싶어도”라고 했다. 따라서 세 번 험한 곳에 오른다고 말한 것이다.(〈卷耳〉詩, “陟彼崔嵬, 陟彼高岡, 陟彼砠矣”. 故曰三陟.)

超遙行人遠 떠나간 님은 까마득히 멀리 있건만
 宛轉年運徂¹⁹⁷) 시간은 흐르며 세월만 가네
 良時爲此別 좋은 시절에 이렇게 이별했으니
 日月方向除¹⁹⁸) 해와 달도 바야흐로 선달그믐이라네
 孰知寒暑積¹⁹⁹) 추위 가고 더위 오는 세월의 쌓임을 어찌 알았으랴
 僂俛見榮枯²⁰⁰) 순식간에 꽃폈다 시들어 가네
 歲暮臨空房 세모에 빈방을 지키자니
 涼風起坐隅 차가운 바람이 옆자리서 이네
 寢興日已寒²⁰¹) 자고 먹고 하는 사이 날은 이미 추워져
 白露生庭蕪 흰 이슬은 정원의 잡초에 맺혀있구나

194) ○原隰: 여기서는 ‘들판’을 가리킴.

195) ○荒蹊: 황폐한 작은 길.

196) ○勞此山川路: 《詩經·小雅·漸漸之石》에 “산과 내가 멀고 아득하니, 다만 고달프기만 하네(山川悠遠, 維其勞矣)”라는 진고가 있음.

197) ○宛轉: ‘세월이 흘러감’을 가리킴.

198) ○除: ‘제야(除夜)’, 즉 ‘선달 그믐날 밤’을 가리킴.

199) ○寒暑積: 추위가 가고 더위가 오듯이 세월이 쌓여간다는 의미임.

200) ○僂俛: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의 의미임.’

201) ○寢興: 잠자고 일어나는 것, 여기서는 ‘잠자고 먹고 하는 일상생활의 기거(起居)’를 가리킴.

○沈評: 1장부터 4장까지는, 밖에서 벼슬위해 떠도는 신세로 스스로 하루도 (고향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一章至四章, 言宦仕於外, 己之靡日不思也.)

- 勤役從歸願²⁰²) 타지에서 벼슬하다 돌아가는 소원 이뤘으니
 反路遵山河 돌아가는 길은 산과 강을 따르네
 昔辭秋未素²⁰³) 예전에 헤어질 땐 가을도 아직 안되었는데
 今也歲載華²⁰⁴) 지금의 세월은 꽃피는 봄날이구나
 蠶月歡時暇²⁰⁵) 누에치는 시절에 즐거운 여유 있었기에
 桑野多經過 자주 뽕 밭을 지나갔다네
 佳人從所務 아름다운 여인네 본업 힘써 일하니
 窈窕援高柯²⁰⁶) 아리따운 모습으로 높은 가지 따네
 傾城誰不顧 성을 기울만한 미인을 누가 돌아보지 않으리오
 弭節停中阿²⁰⁷) 길 한가운데서 수레를 멈추었다네

 年往誠思勞²⁰⁸) 해 갈수록 진실로 그리움에 괴롭나니
 路遠闊音形²⁰⁹) 길은 멀고 목소리와 모습은 생소해지네
 雖爲五載別 비록 오년 동안만 헤어졌어도
 相與味平生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네
 捨車遵往路 수레를 버리고 옛 길을 따라가니
 鳧藻馳目成²¹⁰) 오리가 수초 만난 듯 눈길 주며 정분 보내니

202) ○勤役: 여기서는 '행역(行役)'의 의미로, '공무로 타지에서 고생하는 것'을 가리킴.

203) ○秋未素: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은 가을'을 가리킴. '素'는 '서리(霜)'를 의미함.

204) ○載華: 초목이 꽃피는 봄 시절을 가리킴.

205) ○蠶月: 양잠(養蠶)하는 시절인 음력삼월을 가리킴.

206) ○援: '끌어당기다(引)'의 의미임.

207) ○弭節: '말채찍을 내려놓다'의 뜻으로, 여기서는 '수레를 멈춘다'는 의미임. ○中阿: '길 중간(中途)'의 의미임.

208) ○勞: 여기서는 '괴롭다(苦)'의 의미임.

209) ○闊音形: '목소리와 용모가 생소한 것'을 가리킴.

南金豈不重²¹¹) 남방의 황금이 어찌 귀중하지 않았으랴
 聊自意所輕 단지 스스로 하찮게 여겼다네
 義心多苦調²¹²) 수절하는 마음에는 슬픈 곡조 많을지라도
 密比金玉聲²¹³) 금과 옥과 같은 소리에는 더욱이 가까울지라

○沈評: 5장부터 6장까지는 추호자가 수레에서 내려 그녀에게 황금을 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반표의 <기주부>에서 이를기를, “오리가 수초를 만난 기쁨을 느껴 음악을 바치네”라고 하였다. (五章至六章, 言遇於桑下, 秋胡子下車, 與之以金也. 班彪<冀州賦>曰, 感鳧藻以進樂.)

高節難久淹²¹⁴) 높은 절개에 오래 머물기는 어려울지니
 搢來空復辭²¹⁵) 왔다 갔다 부질없이 쓸데없는 말 반복했네
 遲遲前途盡 느릿느릿 앞으로 가 남은 길 다하니
 依依造門基²¹⁶) 꾸역꾸역 대문 앞에 도착하였네
 上堂拜嘉慶²¹⁷) 안채에 올라 노모에게 안부 인사 올리고
 入室問何之 방에 들어가 아내가 어디 갔는지 묻네
 日暮行采歸 해 저물녘에 뽕 따러 갔다 돌아오니
 物色桑榆時²¹⁸) 경물은 뽕나무 느릅나무에 석양 비치는 때라
 美人望昏至 아리따운 여인 황혼 무렵에 돌아오니
 慚歎前相持 부끄럽고 한탄스러워 앞으로 나아가 손을 맞잡네

210) ○鳧藻: 들오리와 수초를 가리킴. 여기서는 오리가 수초를 만난 것처럼 남녀가 정분을 다정히 나누는 것을 나타낸다. ○目成: ‘눈길을 서로 교환하며 정을 나누는 것’을 가리킴.

211) ○南金: ‘남방에서 생산되는 황금’을 가리킴.

212) ○義心: 의로운 마음, 여기서는 ‘수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킴.

213) ○金玉聲: 《詩經·小雅·白駒》에 “그대의 소식을 금옥같이 하라니, 나를 멀리하려는 마음 갖지 마세요(毋金玉爾音, 而有遐心)”라는 전고가 있음.

214) ○高節: ‘고상한 절조’를 가리킴.

215) ○搢來: 여기서는 ‘가다 오다(去來)’와 같은 의미임.

216) ○依依: ‘버리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있는 모양’을 가리킴. ○造: 여기서는 ‘도착하다’의 의미임. ○門基: ‘출입문’, ‘대문’을 가리킴.

217) ○拜嘉慶: 여기서는 ‘노모를 배알하고 축복의 안부 인사를 올리는 것’을 가리킴.

218) ○物色: ‘경물(景物)’의 의미함. ○桑榆時: ‘뽕나무와 느릅나무에 해가 비치는 석양의 시기’를 가리킴.

○沈評: 이 장은 그의 모친이 사람을 시켜 그의 부인을 불러 오게 하니, 바로 예전의 뽕따던 여인이었음을 말한 것이다.(此章言其母使人呼其婦至, 乃向采桑者也.)

有懷誰能已	가슴 속 그리움 있으니 그 누가 멈출 수 있으랴
聊用申苦難	애오라지 힘들고 슬픈 세월을 풀어내누나
離居殊年載	떨어져 산 것이 여러 해를 넘겼으니
一別阻河關	한번 이별에 강과 관새로 막혔었다네
春來無時豫 ²¹⁹⁾	봄이 와도 즐거운 시간 없었고
秋至恒早寒	가을 와도 언제나 일찍 추웠네
明發動愁心 ²²⁰⁾	새벽부터 슬픈 마음 일어났었고
閨中起長歎	규방에선 길게 탄식 했었네
慘淒歲方晏 ²²¹⁾	처참하게 서글피 한 해 막 저물 때에
日落遊子顏	석양에 나그네 얼굴 떠올렀다네

○沈評: 감정이 처참하고 서글픈데 한 해가 바야흐로 저물려는 시기의 날이 막 지는 때에 더욱 떠도는 님의 얼굴이 생각남을 말하고 있다. 이 장은 오년 동안 그리워했던 감정의 일을 하소연 하고 있다. 앞장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있음을 말하며 평범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으니, 마땅히 분한 마음을 토로하는 말이 나와야 했음에도 여기서는 오히려 이별의 고됨을 하소연 했으니, 급한 곳에서 느긋하게 이어 받았음ियो, 이것이 바로 절주의 교묘함인 것이다.(言情之慘悽, 在乎歲之方晏, 日之將落, 愈思遊子之顏. 此章申言五載中思慕情事. 前章說相持矣, 以常情言, 宜卽出憤語, 此却申言離居之苦, 急處用緩承, 正是節奏之妙.)

高張生絕絃²²²⁾ 팽팽하게 조여 높은 소리 날 때 현은 잘 끊기고

219) ○豫: '즐거움'을 의미함.

220) ○明發: '여명(黎明)' 시기를 가리킴.

221) ○晏: 여기서는 '늦다(晚)'와 의미가 같음.

聲急由調起 소리가 급박한 것은 음률이 조화를 잃은 데서 일어나네
 自昔枉光塵²²³⁾ 옛날에 빛나는 풍채 굽히시어
 結言固終始²²⁴⁾ 맹서한 것은 진실로 처음부터 끝까지였다네
 如何久爲別 어떻게 오래도록 이별을 하여
 百行讐諸己²²⁵⁾ 온갖 행동으로 자신에게 허물 만들었는가
 君子失明義²²⁶⁾ 군자께서 밝은 대의 잃으셨으니
 誰與偕沒齒²²⁷⁾ 누구와 더불어 백년해로하리오
 愧彼行露詩²²⁸⁾ 저 <행로>시 읽기 부끄럽나니
 甘之長川汜²²⁹⁾ 기꺼이 긴 사강에 몸을 던지리

○沈評: ‘팽팽하게 조여 높은 소리 날 때 현은 잘 끊긴다’고 한 것은 절조를 세워 죽음을 바친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비유한 것이고, ‘소리가 급박한 것은 음률이 조화를 잃은 데서 일어나네’라고 한 것은 말이 절박한 것은 슬픔이 심한 데서 일어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주역》에서 이르기를, “누이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했다. 고악부처럼 강건한 경책은 없지만, 장법이 면밀하고 배치가 평온하며 순조로워 안연지의 시작 중에서 상품의 것이다. (高張生於絃茲, 喻立節期於效命. 聲急由乎調起, 喻詞切興於悵深. 《易》曰, 歸妹, 人之終始也. 無古樂府之警健, 然章法綿密, 布置穩順, 在延之爲上乘矣.)

222) ○高張: ‘현을 팽팽하게 세게 조여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을 가리킴.

223) ○光塵: 여기서는 ‘풍채(風采)’와 같은 의미임.

224) ○結言: ‘맹서의 말’을 의미함.

225) ○讐: ‘잘못’, ‘허물’을 가리킴.

226) ○失明義: 《孔子家語》에 “음란한 것은 남녀에서 생겨나니 남녀에 분별이 없으면 즉 부부기간에도 율음을 잃어버린다. (淫亂者, 生於男女. 男女無別, 則夫婦失義)”라는 전고가 있음.

227) ○偕沒齒: ‘함께 이빨이 다 빠질 때까지 해로한다’는 의미임.

228) ○行露詩: 《詩經·召南》에 나오는 <行露>편명으로, <毛詩序>에서는 “강폭한 남자는 정숙한 여인을 침범할 수 없다(強暴之男不能侵凌貞女也)”라고 언급하고 있다.

229) ○之: ‘가다(往)’과 같은 의미임. ○汜: 사강(汜江), 강의 한 이름.

3. 結語

본고는 沈德潛의 《古詩源》 중에서, 南朝 宋代에 수록되어 있는 顏延之의 시가를 번역하고 註解함으로써, 심덕잠이 생각한 안연지의 뛰어난 시작은 어떠한 것이고, 그에 대한 심덕잠의 평가는 어떠한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序言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덕잠은 '音律'의 조화와 '學識'을 매우 중시했으며 '溫柔敦厚'한 풍격을 추구하는 가운데 '詩教'의 전통을 좇으려 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시가 비평 정신은 안연지의 詩作에 대해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즉, 안연지의 詩作 가운데 취사선택한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풍부한 '學識'을 바탕으로 한 典故의 사용이 매우 빈번했으며, <應詔燕曲水作詩>, <郊祀歌>, <贈王太常>, <五君詠> 등의 작품은 모두 '頌美'의 뜻이 확연히 드러나 '詩教'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었다. 또한 심덕잠 스스로가 '上乘'으로 인정한 <秋胡子> 9首를 평가 할 때에는, "마땅히 분한 마음을 토로하는 말이 나와야 했음에도 여기서는 오히려 이별의 고됨을 하소연 했으니, 급한 곳에서 느긋하게 이어 받았음ियो, 이것이 바로 절주의 교묘함인 것이다(宜卽出憤語, 此却申言離居之苦, 急處用緩承, 正是節奏之妙)"라고 하거나, "장법이 면밀하고 배치가 평온하며 순조롭다(章法綿密, 布置穩順)"라고 언급하는 등, 그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儒家의 '溫柔敦厚'한 풍격을 여실히 반영했다. 특히, 총론 부분에서 "육기는 늘어놓으며 서술하는 것에 뛰어났으며, 안연지는 아로새겨 넣는 수식에 능했다. 그러나 또한 이로 인해서 허물이 되었다(士衡長於數陳, 延之長於鏤刻, 然亦緣此爲累.)"라고 언급한 부분은 매우 적절한 평가로 사료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각종 板本의 차이에 따른 字句의 교감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또한 해석에 있어서도 직역 위주로 풀어냈기에 어색한 해석을 면하기 어려웠음을 밝히며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參考文獻〉

- 沈德潛,《古詩源》,中華書局,1990年。
張溥,《漢魏六朝百三家集題辭注》,世界書局,1965年。
王純父箋注,《古詩源箋注》,華正書局,2005年。
馮保善,《新譯古詩源》,三民書局,2006年。
胡幼峯,《沈德潛詩論探研》,學海出版社,1985年。
逢欽立,《先秦漢魏晉南北朝詩》,中華書局,1995年。
錢基博,《中國文學史》,中華書局,1996年。
郭預衡,《中國古代文學史》,上海古籍出版社,1998年。
曹道衡,《中古文學史料叢考》,中華書局,2003年。
葛曉音,《八代詩史》,中華書局,2007年。
傅剛,《魏晉南北朝詩歌史論》,吉林教育出版社,1995年。
張曉彭,〈沈德潛《古詩源》的價值〉,《南都學壇》,2008年,3月。
王燁,〈沈德潛選詩:選本的定位及其價值生成〉,《武漢大學學報》,2011年,3月。
楊艷華,〈顏延之詩歌創作得失評議——以王夫之《古詩評選》對顏延之的評論為中心〉,《漳州師範學院學報》,2011年,4月。
李佳,〈顏延之作品新探〉,《北京大學研究生學志》,2008年,2月。
孫明君,〈顏延之與劉宋宮廷文學〉,《文學遺產》,2012年,2月。
馬恩霞,〈顏延之詩喜用古事,殆同書抄辨析〉,《名作欣賞》,2009年,20期。
陸岩軍,〈顏延之詩文特點及其成因的探討〉,《晉中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2004年4期。
陸立玉,〈論顏延之詩歌創作特色〉,《內江師範學院學報》,2006年3期。

〈中文提要〉

本論文乃以將《古詩源·顏延之篇》譯成韓語,且加以注釋為主旨。《古詩源》是沈德潛代表選集之一。藉此書可窺見沈氏之詩論。此書收錄顏延之之7題27首詩歌。顏延之,字延年,南朝宋文學家。少孤貧,居陋室,好讀書,無所不覽,詩作之美,冠絕當時,與謝靈運並稱,‘顏謝’。《古詩源》收錄詩中〈應詔燕曲水作詩〉,〈郊祀歌〉,〈贈王太常〉,〈五君詠〉等,皆為發揮詩教頌美情神之作,且沈氏在《古詩源》中云,“宜即出憤語,此却申言

離居之苦，急處用緩承，正是節奏之妙”，“章法綿密，布置穩順”，由此可見沈氏之儒家溫柔敦厚之詩歌批評審美觀以及對顏氏詩歌評價之高。

關鍵詞：古詩源、沈德潛、顏延之、南北朝詩、南朝詩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9. 30.	2012. 11. 2.	2012. 11. 17.	2012. 11. 21.	2012. 11. 30.